

전국금속노동조합 투쟁 달력

날 짜	투 쟁	조직지침	시간 · 장소
07월 10일(수)	노동개약 분쇄,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		11시, 국회 앞
07월 11일~12일 (목-금)	노동탄압 분쇄, 최저임금제도 원상회복,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1박 2일 노숙농성	충청권 확대간부, 희망조합원	15시, 세종시 한신휴시티 앞 집결
07월 11일(목)	중국 청산강철 부산 냉연공장 신설 저지 금속노조 결의대회	영남권 지부 확대간부, 철강분과 확대간부, 참가희망 조합원	15시, 부산시청
07월 16일(화)	노동개약 저지 국회 앞 릴레이 집결투쟁 -금속노조 집결투쟁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확대간부	세부 일정 총연맹 협의 공지
07월 18일(목)	노동개약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노동탄압분쇄 총파업 대회	쟁의권 확보단위 4시간 전 조합원 파업. 쟁의권 미확보단위 확대간부 파업	지역별 대회, 수도권 14시, 국회 앞
07월 24일(수)	2019년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7월 18일 이후 사측이 일괄제시안 제출 않을 경우, 지부·지회별 2시간 이상 파업	세부 일정 지부 상황에 따라 조정
07월 24일(수)	노동존중은 노조 할 권리부터, 노조파괴 문재인 정권이 해결하라, 유성기업 투쟁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	유성지회 파업, 충남지부·대전충북지부 확대간부 이상, 민주노총 지역본부 단위 연대, 투쟁사업장·참가희망 조합원	14시, 청와대 앞
08월 14일(수)	2019년 투쟁승리 교섭보고 대회	사업장별 파업 출·퇴근·중식집회	
08월 21일(수)	금속노조 18만 시기 집중 2차 공동파업- 지부별 총파업대회	전체 사업장 8월 중순까지 쟁의권 확보, 18만 전 조합원 파업, 지부별 조직화 계획 8월 13일 중앙쟁대위 제출, 논의	날짜 변경 가능
08월 27일(화) 중앙교섭 미타결 시, 8월 28일(수) 18만 시기 집중 3차 파업 전개			
09월 04일(수) 미타결 사업장 타결 위한 지부별 동시다발 파업 등 총력 집중 투쟁 전개(날짜 변경 가능)			
9월 정기국회(회기 100일) 시기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약 예고, 8월 임단협 투쟁 기조에 노동기본권 확대 전면 배치하고, 민주노총과 총노동 전선 구축 위한 투쟁계획 마련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차그룹 불법 취업규칙 강행 시 파업 돌입 경고.

자한당, 근로기준법체제 부정 등 노조 말살 선포

민주당,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법 개약 문재인 정부, 역대 최악 최저임금 인상 민주노총 위원장 등 구속 노동권 개약 대가로 자본과 총정

현대차그룹, 취업규칙 개약 선방 경고, 최저임금 삭감 생떼

▲임단협 투쟁승리 ▲노동기본권확대 ▲탄압분쇄-개약 저지 ▲원하청 불공정거래개선 ▲조선 구조조정저지 ▲최저임금 1만 원

전국금속노동조합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추진하겠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 ‘노동자유계약법’도 필요합니다. ... 유연한 노동시장을 보장해야 합니다. ...”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서

“탄력근로제는 경사노위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해온 안인데 이걸 존중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 스스로 조정해서 온 안을 두고 이게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한정애,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고용노동소위 산회 뒤

“사회적 대화의 첫 번째 덕목은 주고받는다를 이해하는 것인데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올 필요가 없다...아들·딸 세대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한경 밀레니엄포럼 중에서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각 사업장에 52시간 근로제를 준비하도록 충분히 계도기간을 줬으니 점검이 필요하다. 다만 탄력근로제 입법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중 단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기자간담회 중에서

“정권에 잘 보여 검찰에서 수사권이나 좀 얻어보겠다는 경찰이 정권 편인 민노총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다. 이쯤 되면 법질서 파괴 주범은 민노총이 아니라 경찰이다.”

조선일보, 사설 중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가능한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약 4000원에서 5000원 정도의 최저임금이 적합한 임금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승노, 전경련 자유기업원장, JTBC 아침&맛짱 토론 중에서

“정부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해 법정 최저임금을 동결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들은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법정 최저임금이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속 산별 최저임금 제시안을 낼 수 없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 직무대행, 9차 중앙교섭 중에서

금속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압도적 찬성 가결

87.4%

김호규 위원장

“금속노조는 단결하면 승리한다. 우리는 울산에서 영웅적인 투쟁을 벌였고, 거제에서 시민과 함께 위대한 투쟁을 만들었다. 새로운 투쟁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

- 대우조선 재벌 특혜 매각 철회, 조선업 팔아먹는 문재인 정부 규탄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7월 18일 2019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시기 집중 1차 파업방침

- 금속노조는 7월 18일(목) ▲2019년 임단협 투쟁승리 ▲노동탄압분쇄 ▲노동기본권확대 ▲조선 구조조정저지 ▲최저임금 1만 원 ▲원하청 불공정거래개선 기조로 시기 집중 1차 파업을 전개한다.
- 지역별로 개최하는 ‘노동법 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에 참여한다.
- 쟁의권을 확보한 단위는 4시간 전 조합원 파업을 전개하고, 쟁의권 미확보단위는 확대간부 파업을 전개해 총파업대회에 참여한다.